

이 글은 1994년 3월에 있었던 「서울 1000년 타임캡슐광장」설계경기의 시작에서부터 기본설계 중반단계까지의 설계과정을 일기형식으로 적은 것이다. 이 글은 설계자의 입장에서 쓴 글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욕심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사람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분 들께는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사실은 본 란에 「명동성당 축성 100주년기념 설계경기 유감」이라는 제목으로 쓰고자 했으나 여러가지 사실들이 밝혀지지 않은 시점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글로 대신한다.

이종상 기

# 서울 1천년 타임캡슐 광장

Timecapsule Plaza for 1000 year Seoul

이종상 / 이데아 건축사사무소  
by Lee Jong-Sang

3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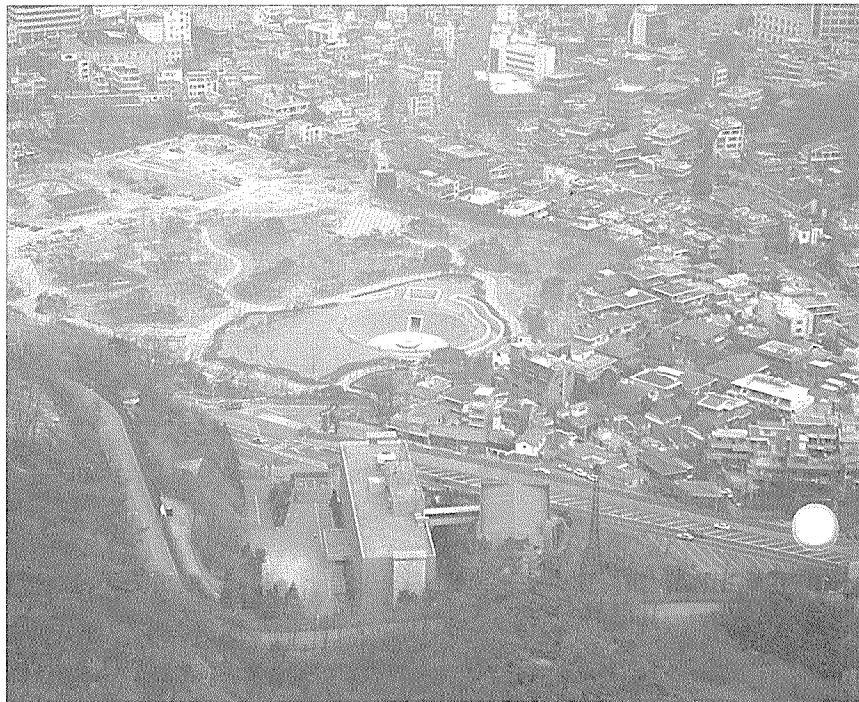
아침 조간 신문에서 “서울 1000년 타임캡슐 광장 명소화 방안” 현상공모 공고를 발견했다. 단서조항 중에 “선정된 제안을 종합 활용하여 명소화 최종방안을 서울시에서 작성하며(시상과 동시에 저작권등 일체의 권리를 시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간주), 선정된 제안자는 타임캡슐 기록집에 기록 보존된다.”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 응모신청은 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타임 캡슐을 땅에 묻는다’는 행위에 대한 강한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다.

3월 11일

오후 3시경 임과장이 서울시에서 있었던 현장설명회에서 돌아왔다. 응모지침서와 SITE에 대한 자료로 조잡하게 그린 조감도(남산골 제 모습 찾기 마스터 플랜) 카피본을 가지고 왔다. 현장설명회의 분위기에 대한 설명과 질의내용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유 토론시간을 가졌다.

나는 회의진행중 달 표면에 있는 크레이트 모양의 단면 중앙에 은행나무가 있는 그림을 그렸다. 물론 타임캡슐은 은행나무 밑에 묻혀있는 그림



남산타워에서 바라 본 타임캡슐광장

이다.

나는 이 그림을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우주 생식의 신비를 간직한 운석은 타임캡슐을 의미하며, 떨어진 운석의 흔적인 크레이트는 곧 타임캡슐 광장이 아니겠느냐고... 또한, 용문산에 있는 하늘을 찌를 듯한 은행나무를 본 감동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성을 표현하는데는 은행나무가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디자인개념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결정되었다. 회의를 마치며, 우리는 1주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조금전 결정된 개념에 대해 더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가 응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였다.

3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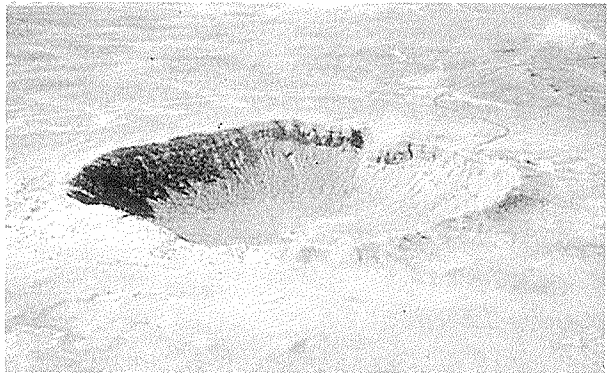
평소에 과학잡지를 정독하고 과학상식에 대해 이야기 하길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생인 준원에게 자료수집을 부탁했다.

1. 미래인들의 생활상을 그린 그림 (예를 들면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공상과학 그림)
2. 달 표면의 크레이트 사진
3. 오래된 은행나무 사진

3월 16일

작업을 시작했다. 모형을 제작하는 것으로 일은 시작되었다. 크레이트의 크기와 남산골 부지와와의 관계를 찾기 위해 서울시에 현황 측량도를 요구하였다. 최종 성과품의 표현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가장 최신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사진이 어떨까?" 준원과 친구들의 자료수집은 신통치 않다. 지난 일요일의 국립도서관에서의 도서관 열람은 만 18세이하의 연소자는 도서관 열람 불가라는 것이었고, 교보문고에서 찾아온 「21C 최신 정보」라는 책이 전부였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식을 가장 필요로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 중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사회가 충격적이었으리라. 준원과 컴퓨터 터미널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다.



3월 2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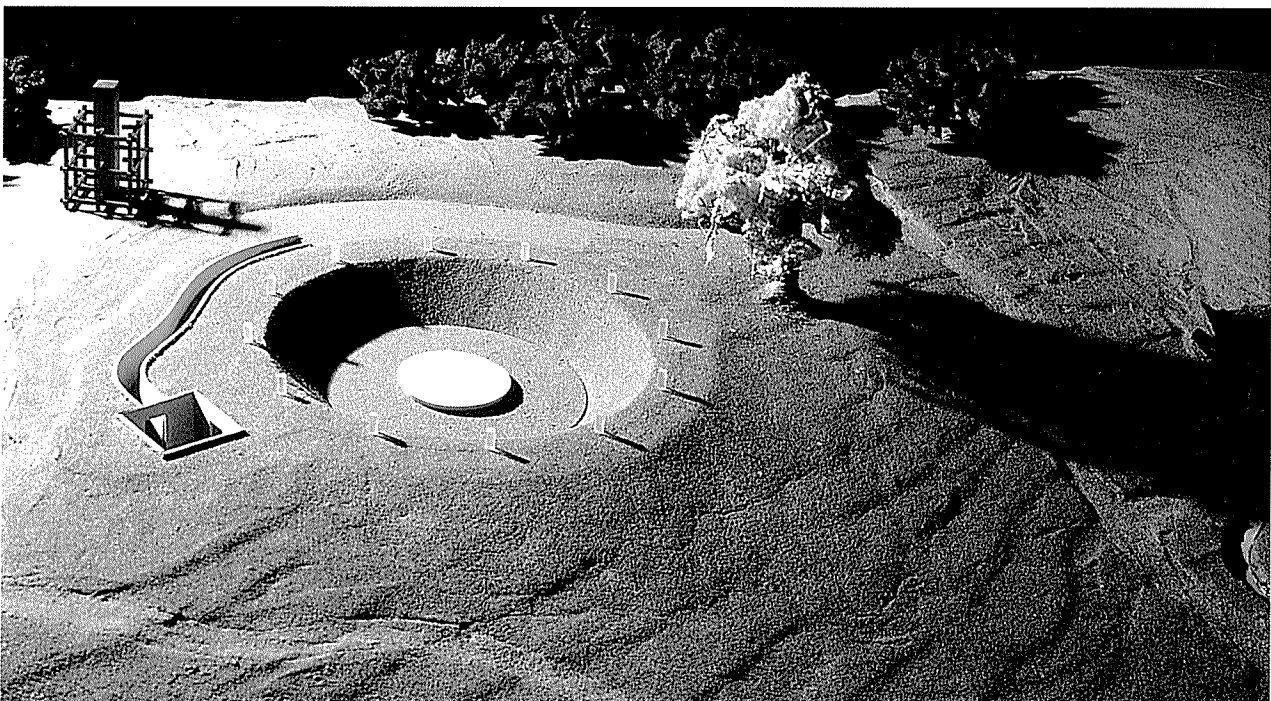
“은행나무를 광장에서 빼내는 것이 어때?”

모형 작업에 열중한 직원들에게 던진 이 말은 직원들을 당황하게 했다. 사실 몇일전부터 크레이트에 갇힌 듯한 은행나무가 답답해 하듯이 했고, 타임캡슐 바로 위의 은행나무 심기라는 표현은 너무 직설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었다. 은행나무를 광장의 우측 경사면에 옮겨 놓자마자 크레이트를 중심으로 좌측의 전실공간과 전망대와 삼각도구가 이루어졌다. 갑자기 넓은 잔디의 구릉으로 이루어진 모형에 생명력이 일어나는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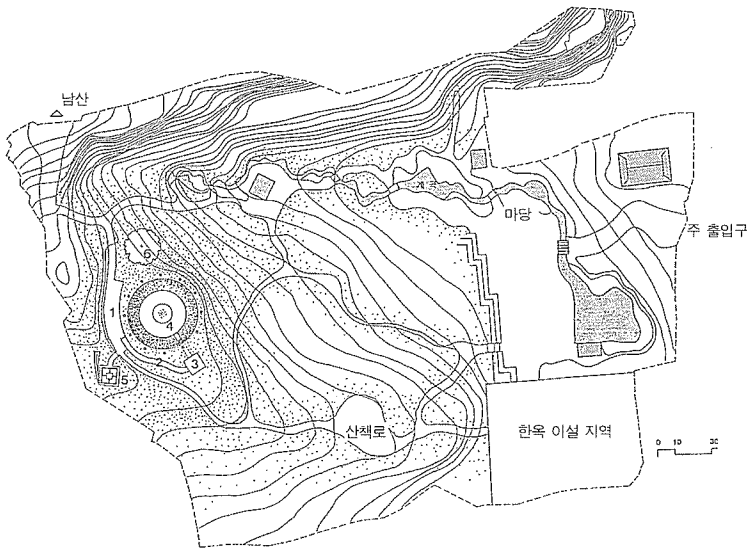
3월 28일

오후 5시 작품제출 접수번호 21.

일주일간의 밤샘으로 제출도서를 제작 완성하다. 최종 표현은 건축사진가 윤창진 소장의 모형사진으로 제작함.



조감도



타임캡슐 광장 종합 계획도

4월 2일

서울시청 600년사업본부로부터 전화를 통해 당선 통보를 받았다. “와!” 하는 직원들의 활기 있는 웃음, 실로 오랜만에 느끼는 즐거움이다. 그 순간 지난 겨울에 있었던 인도기행이 생각났다. 상디갈에서 텔리로 가는 기차에서 인도평원에 지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며 느꼈던 고독감 - 나는 세상과 너무 떨어져 있다는 느낌들...

4월 4일

서울시청의 600년사업추진본부에서 첫 회동이 있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심사과정과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중 하나는 전망대의 디자인이 파리에 있는 라벨레뜨 공원의 폴리를 연상시킨다는 말과 함께 원래의 남산골 사업에 있는 팔각정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그리고, 현상설계 2등안을 참작하여 광장 여딘가에 반영시키는 방법을 자문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나의 작품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위기감을 느꼈다.

4월 6일

서울시청 600년사업 담당관실, 타임캡슐 광장의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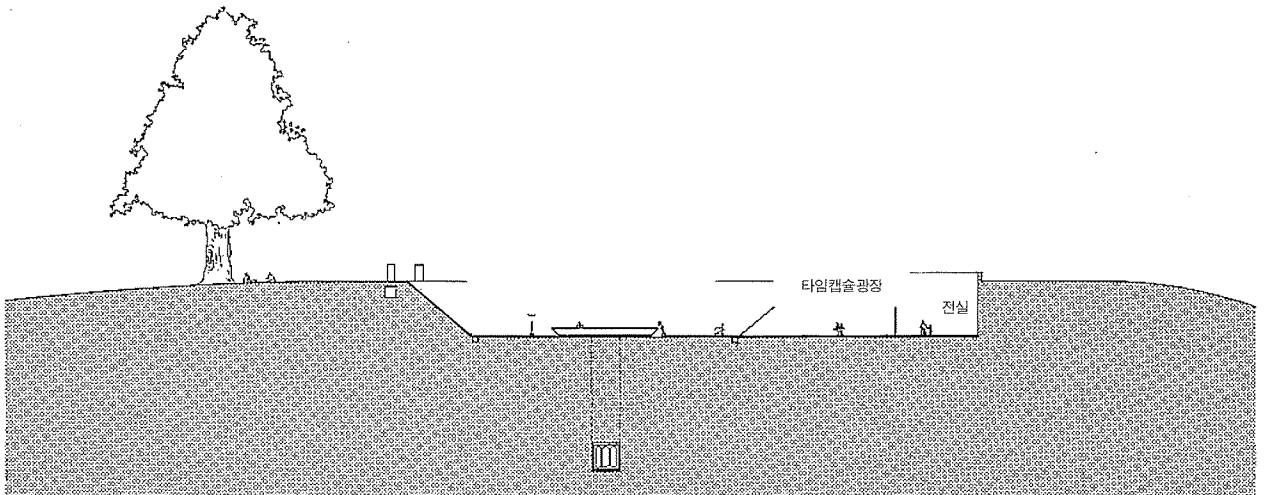
및 실시설계를 시행할 도화종합기술공사의 기술이사를 만났다. 그는 이번 현상설계의 심사위원중의 한사람 이었다고 했으며, 나의 안에 대해 여러가지 코멘트를 했다. 또한 그는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들은 남산골 제모습찾기사업의 설계자로서, 과거 30년동안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던 수도방위사령부 부지를 문화부 관리국과 함께, 여러 대학교수들의 자문을 받아 원래 남산에 식생하였던 나무를 식재하고, 가회동 일대의 한옥들을 이전하여 한국식 공원을 조성하던 중에, 서울시의 타임캡슐 광장부지의 사용 협조 요청에 따라 약간의 대지를 할애한 것이라 말했다. 그러므로, 선 남산골 찾기 사업이고, 후 타임캡슐 광장 조성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 그가 떠난 후 600년사업 담당관에게 현상설계 응모지침의 부당성을 이야기했다. 그것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침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상식적으로 잘못된 지침이라면 나오서는 지킬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어느 누가 현상설계 당선자보다 더 잘 설계할 수 있느냐고 - 마지막으로 만약 시에서 현상설계의 지침대로 시행 하겠다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시상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4월 7일

몇 번의 저작권에 대한 논쟁으로 나는 심기가 불편한 상태였으며 누구의 도움도 청할 수 없었다. 오후 늦게 담당과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 선생께서 기본설계를 맡고 도화에서 실시설계를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직원들과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가 취할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토론했다. 나는 실시설계자의 설계감독에 대한 언질을 받고 이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결국 서울시로서는 저작권 문제와 2등안과의 절충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4월 11일-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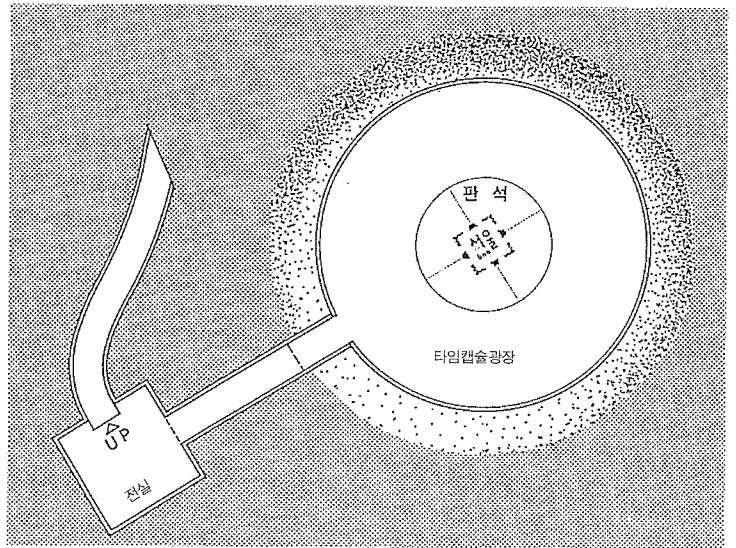
여러 공식행사후 당선작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데아 건축의 이종상입니다. 타임캡슐이란 미래의 인간 혹은 지능이 발달한 생명체에게 현재 지구인의 모습을 진솔하게 전달하려는 수단으로 알



단면도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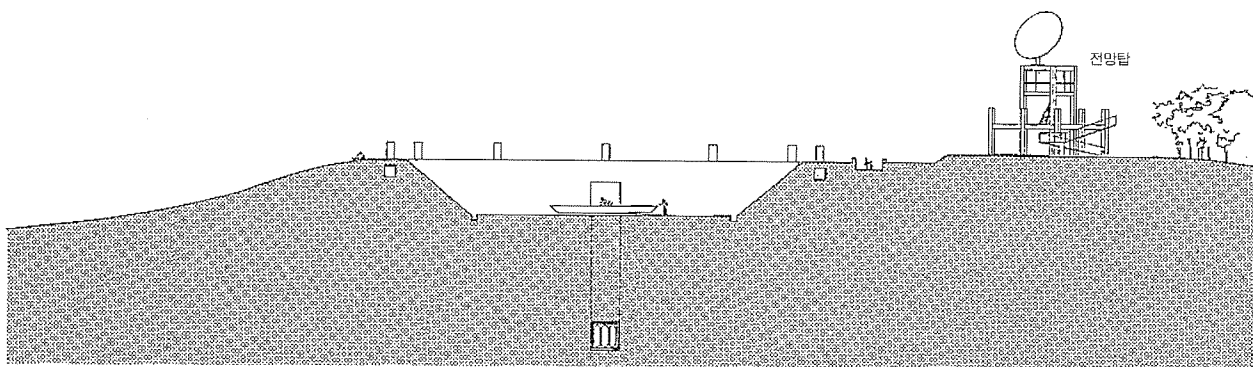
고 있습니다. 타임캡슐 사업은 1930년경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1970년 초반에 미국에서 우주로 향해 쏘아올린 타임캡슐입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삼성재단에서 남산에 타임캡슐을 매설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의 제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일에 임한 저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이 타임캡슐 광장이 서울시민은 물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명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번째로는 환경우호적인 광장과 조형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조형물들은 그 자체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세기말의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구환경보호에 대한 자각입니다. 이 장소가 아름답게 만들어졌을 때 여기를 방문하는 어린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깨우쳐주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이 시간이 흘렀을 때 그것이 역사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때 이 타임캡슐의 의미는 매우 소중합니다. 이제 모형을 가지고 디자인 개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남산골 제모습찾기 사업 부지내에 있으며 지하철 충무로 역에서 가까운 주출입구 쪽에서 본다면 타임캡슐 광장은 공원부지 상단부분에 위치합니다. 타임캡슐 광장은 새 방향의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길로 물이 있는 계곡을 끼고 올라가는 우측길이고 또 하나는 한옥 이전지구를 거쳐 산책로를 통한 좌측길이 있으며 마지막은 남산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갈래 길이 만나는 지점에 넓은 진입마당을 두어 거기서 완만한 한국의 전통적인 곡선형태의 경사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가면 한 변이 9m인 정방형의 전실에 도달합니다. 이 전실의 한쪽 벽면에는 타임캡슐 사업의 취지, 연혁, 안내문 등이 부조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두운 지하통로를 통해 타임캡슐 광장에 이릅니다. 이때 사람들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분위기에 의해 신비로운 느낌을 갖게 됩니다. 타임캡슐 주광장의 형태는 원형으로 그 지름은 30m이고 면적은 214평이나 됩니다. 그 중앙에는 직경 12m의 넓은 판석이 놓이고 그 면에서 15m 아래 지점에 타임캡슐이 묻혀 있습니다. 판석 위에는 세계 각국어로 타임캡슐에 대한 메시지가 각인되어 있습니다(이곳은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추억의 명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파란 잔디로 에워싸인 타임캡슐 광장은 하늘과 은행나무 가지만 보이는 가장 원초적 형태이며 안정된 절대공간의 감동



타임캡슐 광장 평면도

을 방문자들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광장 주변은 6m 높이의 잔디가 식재된 경사진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12개의 빛의 기둥이 있는데 이것은 동양사상의 십이지를 상징합니다. 광장에서 약 15m 거리에 은행나무를 식재합니다. 지금은 어린 나무이지만 400년 후에 커다란 나무를 상상하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는 너무나 유명해서 용문사보다 은행나무를 감상하기 위해 그 장소에 가기도 합니다. 또 모든 관광 자원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진입로 마당 옆에 있는 전망대는 타임캡슐 광장을 조망할 수 있고 거기에 망원경을 설치하여 멀리 종묘와 비원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고 더 멀리 북한산까지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망대 지붕에는 태양전지용 집광판을 설치하여 12개의 빛기둥이 빛을 공급합니다.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태양 빛을 상징하고 민족의 영원성을 기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부연한다면 중국의 철학자 노자는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면 그 비어있는 공간에서 유용성을 찾게된다.'고 하였습니다. 타임캡슐 광장은 바로 땅에 묻혀있는 그릇의 단면과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브리핑 내용 중에는 전망대 부분에 대한 원형상설계안과 다른 내용이 있다. 그것은 격자형의 전망대 상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개념적으로 타임캡슐 광장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기에 충분하였고, 우리



단면도 2

는 팔각정에 대한 부담에서 단숨에 벗어날 수 있었다. 이 날의 시상식은 서울시측에서 정책적으로 크게 홍보하여 T.V 방영 및 기자회견의 기회가 주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감과 사명감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5월 4일

기본설계용역의 계약을 하다.

용역기간은 30일. 기본 설계용역비에 대한 협상에서, 나는 타임캡슐 광장을 예술작품에 상응하게 생각하므로 공사비의 30%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중 50%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복잡한 구조물로 판단하고 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적용시켰다. 서울시 용역 사업 요강 어디에도 타임캡슐 광장이 예술품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결국 서울시에서 제안하는 용역비를 수락하기로 했다.(나는 이일을 수행하는데 용역비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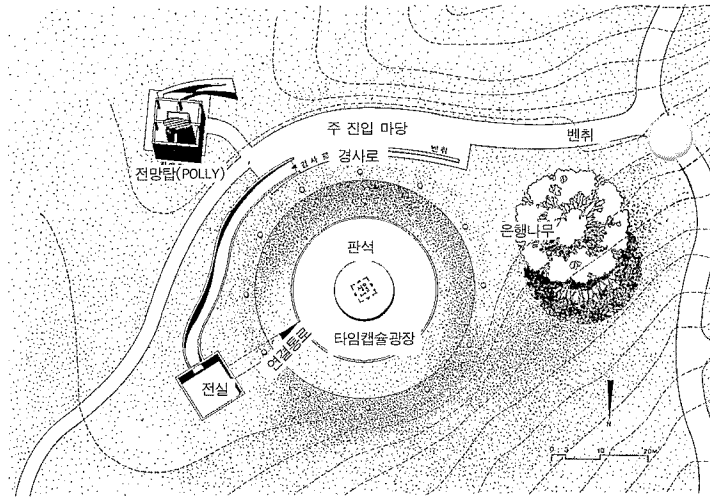
5월 6일

먼저 시와의 협의를 통해 몇 가지 수정사항이 있었다. 초기 안에는 한 그루였던 은행나무를 암수 1쌍으로 하고 대지 우측에 조성되는 수계면에 식재를 하기로 하고, 광장 및 판석의 크기를 조금 축소하는 내용이다. 또한 11월 29일로 완공일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기간을 3주 정도로 축소하도록 요구하였다. 사실 당선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작업을 진행시켰기 때문에 기본설계기간 축소에 동의를 하였지만, 제안된 공기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걱정이 있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실제화하기 위해 먼저 KIST에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Solar System의 실용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국산품 제작에 착수한 금성산전과 협의하라는 자문을 얻었다. 금성산전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한 전력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집광판을 설치해야 함을 알고, 상세한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지금까지 지하 철공사의 잔토처리장으로 사용되어 현장과악이 어려웠던 부지의 잔토정리 결과, 부지상단부 경계선과 주변 주택가와의 거리가 상당히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광장과 주택가 사이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 결과 많은 양의 고정식 집광판의 설치도 고려하여 정방향의 전망대에서 광장을 에워싸는 회랑형태로 전망대가 바뀌게 되었다.(디자인 개념이 점에서 선으로 바뀐 것이다.) 또한, 전망대 상단 남쪽면에 45° 경사로 설치된 집광판은 2층 회랑에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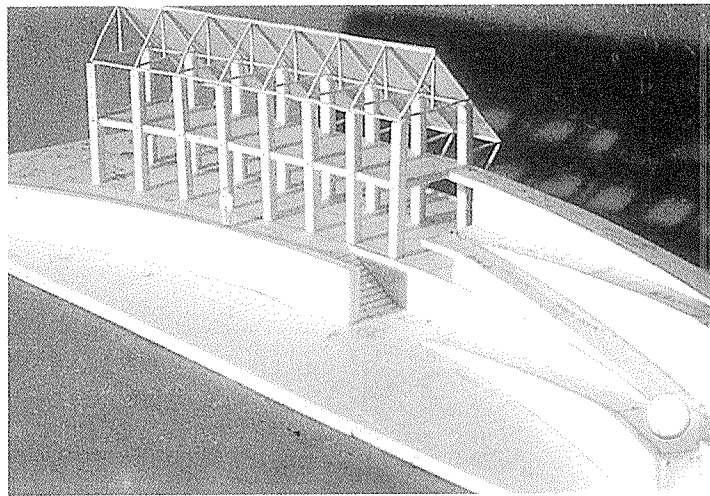
5월 14일

순조롭고 즐거운 작업이 진행되던 중 시청으로부터 기술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우리의 판단으로는 기본설계단계에서 기술심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타임캡슐 사업에 대한 감사에 대비해야 하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심사는 요식행위 정도라고



평면도(산책로 LEV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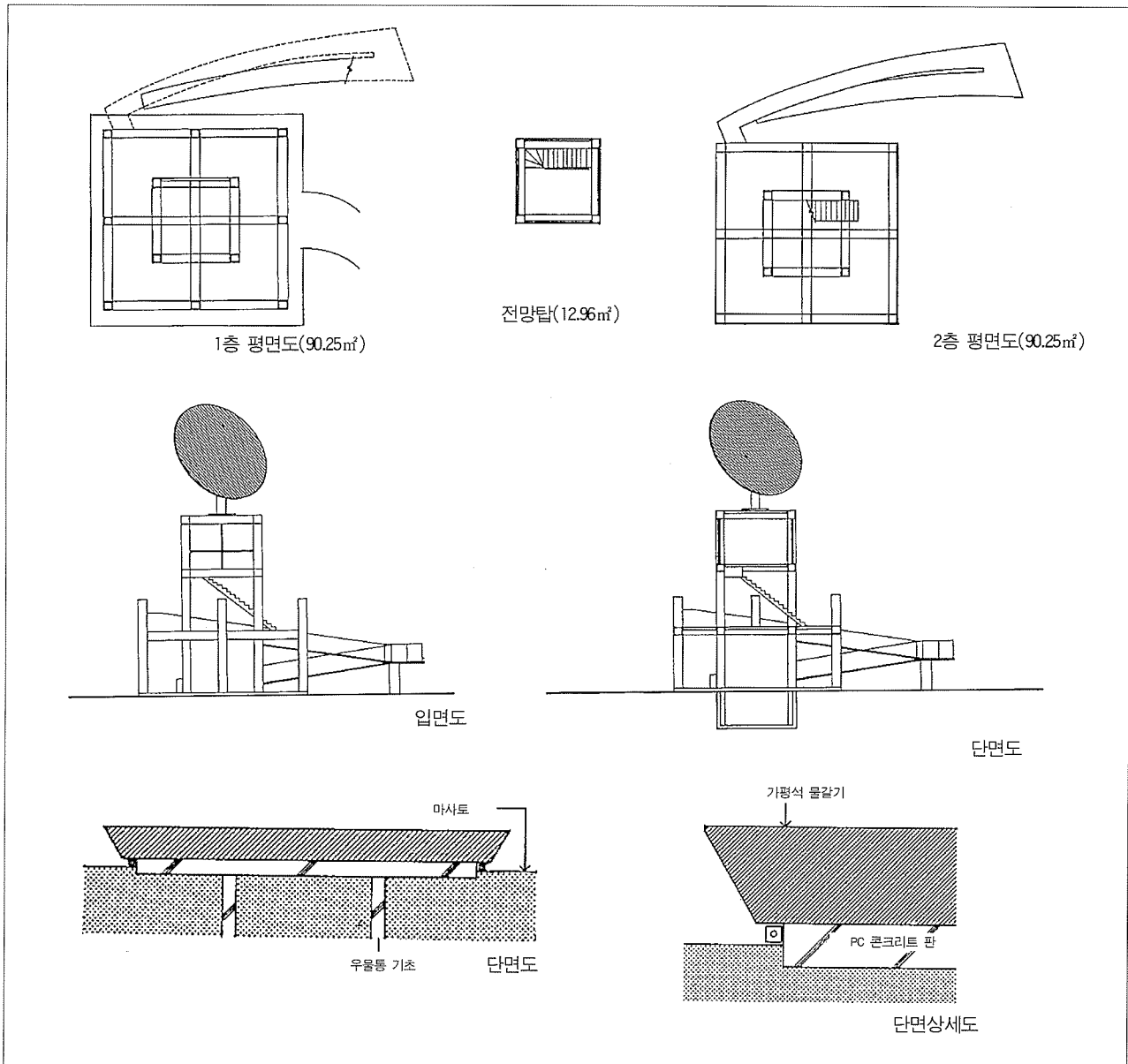
평면도(산책로 LEVEL)

설명했다.

5월 20일

서울 600년사업 담당관의 사회로 기술심사가 시작되었다. 심사관은 전기, 토목, 조경, 지질 등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심사위원중 건축가를 포함시켜주길 원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시청측의 전반적인 설명이 있고 심사위원들의 코멘트가 있었다. 심사위원의 첫 질문은 타임캡슐을 매설하는 방법을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타임캡슐의 제작 방법과, 매설 장소의 지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지질조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매설 방법은 차후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타임캡슐의 지상부분 즉, 광장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그럼 광장의 디자인을 제안한 이종상 소장님의 설명을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나는 우리가 작업한 기본설계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답변은 본 설계시 답변될 내용이라고 말했다. 기술심사위원들은 시청측에 불만을 표시했다. “제출된 기본설계는 기술적인 보조자료가 빠진 상태인데, 도대체 무엇을 심사하라는 것입니까?” 당황한 담당관은 타임캡슐 제작 및 매설방법이 아직 기술적인 검토단계에 있으므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





전망대

며, 오늘 회의는 현 상태에서 참고될 사항이나,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을 수렴하는 정도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심사위원들은 각자 한 두가지 정도의 제안을 하였다. 갑자기 우리의 디자인에 대해 조정부분의 심사위원인 유모 교수가 반론을 제기했다. 먼저 유교수는 12지 조명 등의 안정성을 문제시 하였다. "나의 지금까지 경험으로 봐서 공원 내에 유리 구조물을 설치하면 100% 훼손됩니다." 그는 또 타임캡슐의 진입방법의 잘못을 이야기했다. 왜 사람들이 무엇을 보느냐, 여기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나는 답변했다. "비록 지금까지 공공시설물의 훼손사례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을 시민들의 공중도덕심을 자극시키는 계기로 활용하여 유교수님이 우려하는 시민의식을 고취시킬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흥분한 그는 문화재를 복원하는 이 남산골에, 타임캡슐 광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 했다. "도대체 서울시에서 이런 광장을 왜 조성하는거야?"

#### 5월 21일-심의 결과 통보

1. 지반 조사(core boring)를 반드시 실시하여 지반 조건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할 것.
2. 태양광 발전설비로 선정된 이유 설명 (여건, 기술, 가격 등)
3. 향후 400년간 유지될 구조체 이므로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가상의 외력을 검토할 것.
4. 진입과 진출에서 좁은 통로 하나로 기능을 하도록 되어있어 혼잡이 예상되니 별도 통로설치 검토.
5. 12지 조명 등의 안정성 제시. 등

우리가 우려한 유교수의 현상설계 당선안에 대한 시비는 이미 현상설계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로 결정된 사항이므로 거론 않기로 했다.

#### 6월 1일-기본설계 납품

지난 심의 결과를 보완하여 기본설계를 납품하였다.

6월 11일  
이번 프로젝트의 담당자였던 윤군이 병원에 입원하였다.

일진행 중에 치통으로 고생한 후유증과 급성 장염이 겹쳤다. 그의 책임의식에 감동을 하였다. 직원들에게 건축 설계를 잘 할수 있는 사람은 체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6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납품한 기본설계에 대한 협의가 있다는 연락이 왔다. 참석자는 몇 명의 토목, 전기, 조경부분 대학교수, 시청 종합건설부서의 담당 부장들,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도화토목측의 사람들이었다. 이 회의는 도화측의 요구로 소집된 듯 했다. 도화측은 돌쌓기 방법이나 간접조명 방식, 피트 구조물, 맨홀 등에 관한 사항과 전망대 부분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말했다. 그들의 준비사항에 아무런 준비없이 참석한 나는 ① 실시설계자가 기본설계에 대해 비토할 수 없으므로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은 도화측에서 언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으며, ② 태양광 설비의 내용은 경제성보다 상징성과 교육적인 효과의 기대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미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이므로 시정할 수 없으며, ③ 태양광설비 존치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기술자들만이 아닌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토의 하자고 답변했다.

회의 마지막에 환경대학원의 모 교수가 전망대의 현상을 남산 성곽의 일부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문화재관리국에서 주장하는 남산골 제모습찾기 복원사업의 취지에 의문이 간다. 과연, 가회동의 한옥을 이전시켜 부지입구에 위치한 한국의 집과 연계하여 식당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에 순수성이 존재하는가? 또한, 장소성이 부재된 문화재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재로 가치를 지닐 수 있는 것일까?

6월 14일  
회의 이후에 태양전지의 삭제에 대한 우려로 시에 자문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금성산전측과 시를 설득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다.

6월 16일  
시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보가 왔다.  
'태양에너지 이용구조는 유지관리 측면의 비효율성과

남산골 경관 저해문제가 제기되어 일반 전기이용으로 조정하고, 전망대도 성곽형태로 변경 보완 - 서울 특별시장'

이는 금성산전과 더불어 추진했던 시 설득 노력과 시에 요구한 자문회의 소집이 거부된 것이다. 이것으로 태양전지 사용 계획이 무산되어 맥이 빠졌다. 그러나 이 일의 건축주는 서울시이므로 건축주의 요구는 거절할 수 없는 한계라 생각하고 모형에서 집광판을 떼어 보았다.

6월 17일  
내가 예측하지 못한 자문회의라는 형식을 빌린 공무원들의 일방통행식의 의사결정 행위는 (즉, 1.공무원들의 감사를 의식한 보신주의, 행정편의주의 2. 일부대학 교수와 전문가라는 사람들의 권위주의와 관에 대한 눈치보기식 발언-가끔 그들은 심판처럼 행동한다.)설계자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토론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현상설계를 통했던 수의계약에 의했든, 관에서 발주한 프로젝트가(하나의 훌륭한 건축 작품으로 만들어진 경우)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6월 21일 - 서울 1000년 타임캡슐 광장 기공식  
필동에 위치한 타임캡슐 광장조성 현장에서 기공식이 있었다. 관례적으로 담당 고위공무원과 시 공회사측 임원에 의해 진행되었던 시삽행사에 건축가의 입장으로 나를 초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7월 1일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회의가 소집되었다. 참석자는 건설본부장, 토목담당 부장들, 전기담당 부장, 문화재관리국 담당자, 도화종합기술공사측 실무자들 이었고 주로 도화측에서 전망대 디자인으로 제시한 성곽모형을 주 내용으로 회의는 진행되었다. 기초공사나 시공상의 이유로 판석의 크기 조정 등 기술적인 문제는 인정할 수 있으나 다시한번 디자인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회의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요구를 건설본부장이 수용하였고, 회의가 협약하게 변하자 시측에서 현상설계 당시의 심사위원을 소집하여 최종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하였다. 왜 도화측에서 이미 우리가 결정된 디자인을 자신들이 변경하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내가 빼



았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다.

7월 6일

시청 3층 소 회의실에서 9명의 현상설계서의 심사위원들이 참석 한 회의가 열렸다. 우리측과 도화측에서 제시한 전망대 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는 후 심사위원들의 질문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논의에 들어가기전 신상발언을 통해 여태까지의 있었던 회의는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할 수 있는 회의이며, 이런 식의 회의로 현상설계 당선자의 디자인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하고 퇴실하였다. 심사위원들은 ① 실시설계자가 기본설계자의 디자인 의도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며 ② 성곽형의 전망대의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판단 등 회의의 원칙을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심사위원들의 결정은 기본설계자가 문제가 된 전망대를 광장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단순, 유연하고, 자연스러우며, 지형에 순응하는 디자인으로 보완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전망대를 애초의 현상설계안대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팔각정 대체문제로 야기된 전망된 부분의 석달 동안의 작업은 원점으로 간 것이다.

7월 18일

전망대 부분의 최종 보완결과를 제출하다.

3.3m의 단위 겨자 4개와 동판으로 만든 볼트형 지붕이 연결된 형태를 구성하였다. 전망대 위치는 기존의 서측에서 동측으로 이동하였으며 부지 최고 상단의 경사면에 걸터 앉히는 형상으로 하였다.

7월 21일

오후 늦게 시청 600년사업추진본부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소장님, 어제 시장님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최종 납품된 전망대를 전통적인 한식 정자로 대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7월 26일

지난 21일 전화로 통보 받았던 사항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을 전했다.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서울 1000년 타임캡슐 광장 조성사업의 기본설계자 이종상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서신은 타임캡슐 광장 전망대 부분 최종 보완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은 1994년 7월 6일 전망대부분 최종 자문회의(참석자:현상설계 심사위원, 600년 사업 담당 부처, 문화재 관리국, 도화종합기술공사, 본인)결과인 <기본 설계자가 문제가 된 전망대를 광장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단순, 유연, 자연스러우며, 지형에 순응하는 디자인으로 보완 조치한다.>는 내용에 따라 최종 납품하였습니다. 그후, 7월 22일 600년사업 담당자로부터 저희가 제안한 전망대 대신에 전통 정자로 대치한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시장님의 이러한 결정은 아마도 납품자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셨기 때문이라 사료됩니다. 저희의 견해로 위 통고내용은 제3공화국 이후 전국 각지 산하에 만든 정자의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한 사업은 결과적으로 문화재를 빙자한 문화재 훼손작업이 되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무자들이 우려하는 준공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정자의 설계와 단기간의 공사가 더욱 불가능한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유산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가장 충실하고 진솔하게 시대정신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시간이 지났을 때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장님의 그러한 결정은 작가의 저작권을 무시한 처사라 생각하며 이 시대 해결과제의 하나이기도한 의사결정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는 훌륭한 서울 1000년 타임캡슐 광장 조성을 위하여 지난번 시장님의 결정을 철회시키고 납품된 원안대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제출안에 대한 보완설명으로 사진을 동봉하오니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1994년 7월 25일 이데아 건축사 사무소 소장 이종상-"

8월 3일

시청으로부터 우리측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신이 왔다.